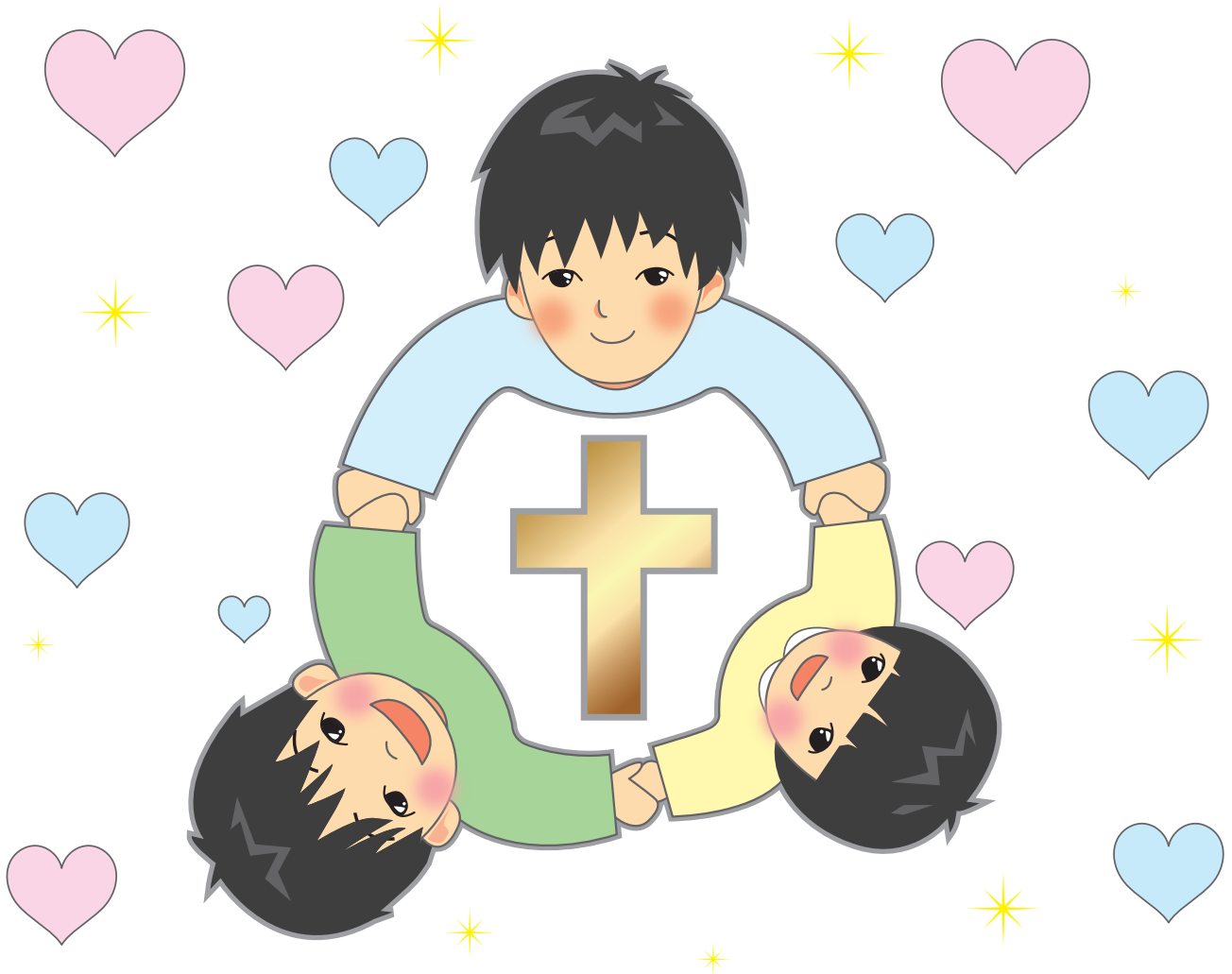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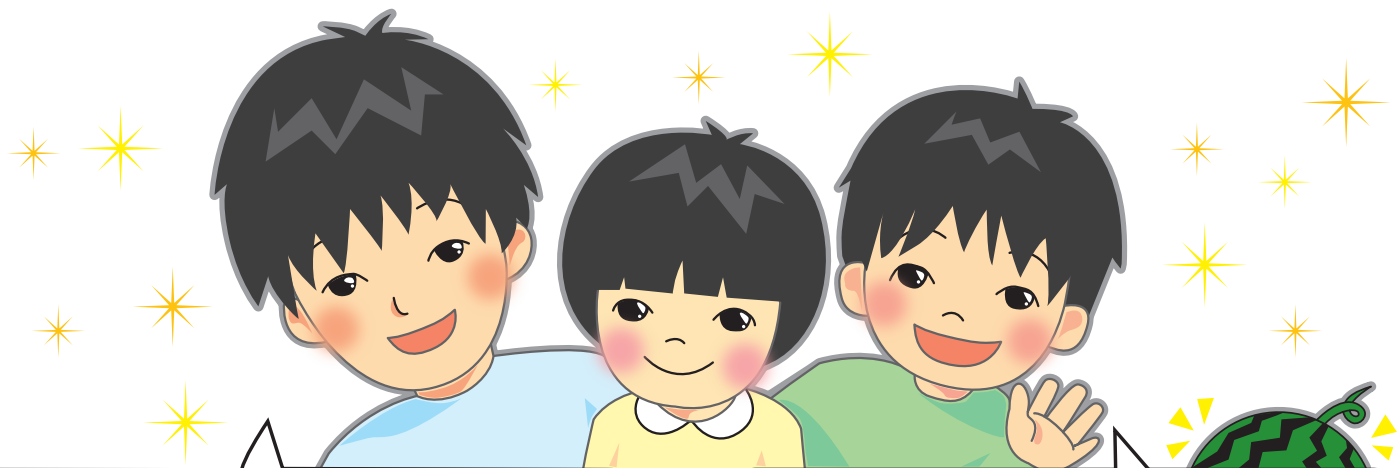


우리 삼형제는 정말 멋진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분을 “예수님” 이라고 부른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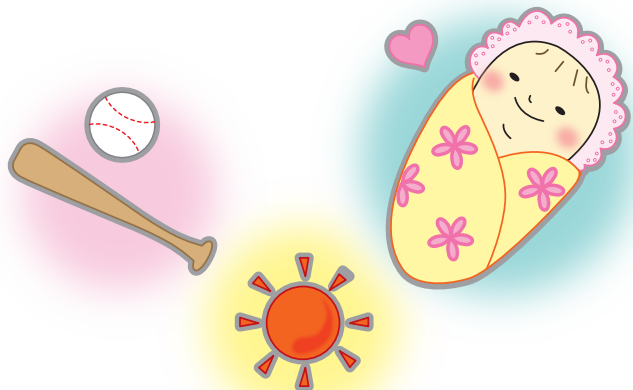
「포도나무」발행



저와 남동생은 아토피 때문에 항상 몸이 가려웠는데, 예수님께 “이제는 가렵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바로 아토피가 나아서 더 이상 가렵지 않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질병도 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랍니다. 학교에서 저를 괴롭혔던 한 친구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아이도 사실은 너와 함께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서 그 아이에게 가서 ‘같이 놀자!’ 라고 말을 걸어봐”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제 감정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구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신답니다. 그 후로 저를 괴롭혔던 친구와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맛있는 수박을 잘 고를 수 있답니다. “예수님, 어떤 게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바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수박이 가장 맛있는지 알려 주신답니다. 과일이나 야채 모두 다-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날씨도 바꾸실 수 있답니다. 일기예보나 신문에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라고 알려 주는데, 제가 예수님께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빠가 됐답니다. 예수님께서 귀여운 여동생을 선물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뱃속에서 아이를 실로 짜듯이 눈, 코, 입 모두 만드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신답니다. 😊 그 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시고 계신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다. 아빠도 엄마도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고 매일 매일이 즐겁답니다! 난처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께 물어보면 도와주시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주에 단 하나뿐인 그 분이 우리 편이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편이 되고 싶어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멋진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신답니다. 예수님께 선택 받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선택 받은 친구는 정말로 행운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그건 정말 간단해요! 밑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목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 제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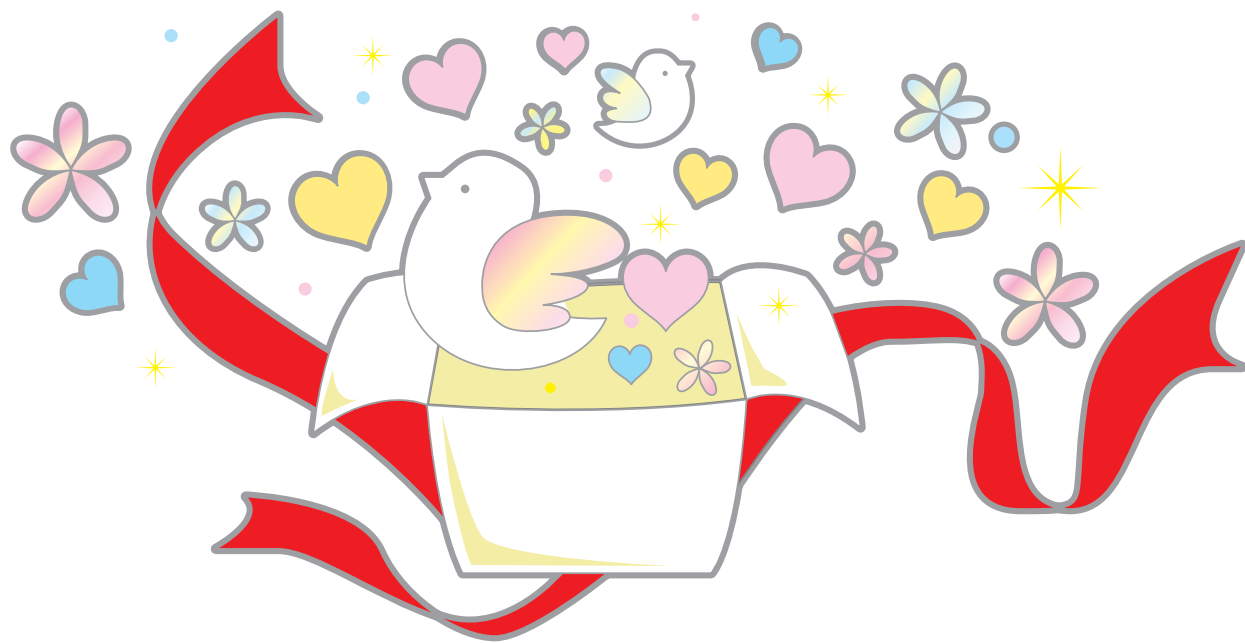
(아멘은 “모든 것이 이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었습니다. (영이란 인간의 뱃속 깊은 곳에 있답니다. 마음과 영은 다르답니다.) 형태는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여기에 있어”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배 부분에서부터 들려올 거예요.)

어! 예수님과 함께 선물상자가 도착했네요.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선물상자를 열어보기 위해서 해야 할이 있답니다. 열어볼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밑에 있는 글을 우렁찬 소리로 읽어볼까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함께 해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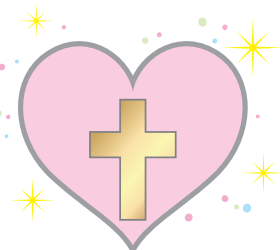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 저에게 성령님의 불로 세례를 주세요. 저의 몸이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받은 줄 믿고, 선물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방언도 주세요. 받은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 (방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방언을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신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과 더 많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저의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상자 안에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우주를 만드신 굉장한 힘을 가진 분이시랍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당신 편이 되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악한 영의 종류는 6000가지도 넘고, 그 악한 영들의 리더는 ‘사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자주 깜빡 잊어버리는 것,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들의 험담을 하는 것들 모두 사탄이 당신에게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라고 말해보세요.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영웅 보다 더 강하니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재벌이나 유명한 스타 또는 천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돈, 명예, 또 똑똑한 머리도,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항상 계신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호해 주신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거기가 아니라 이쪽이야”라고 다시 알려주신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면 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랍니다. 성경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태어나시기 전의 일들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 소중한고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있는데 혼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면 된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형체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언제나 되어주신답니다.

요번 주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요일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질 것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무 많은 멋진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처럼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것이예요. 어린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좋은 일들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교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

